

새싹포교 방향 찾는다

선재연구모임 등 4개 단체 지도자연수

겨울을 맞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 이하 대불어)와 선재연구모임(회장 덕진)등 어린이·청소년단체들이 지도자연수회를 잇따라 연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회는 99년 1월 1~3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2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를 실시한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통해 지도자의 소양을 키우고, 새싹발자 지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회 주요 교육 프로그램에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는 새 세기의 어린이포교'를 주제로 한 강연(철오스님)을 비롯해 △우리는 저마다 존

귀한 주인(장휘옥) △불교의식에 대한 바른 이해(심산스님·통도사 부산포교원, 덕진스님·울산정토사 △찬불가(종경소리) △깨어있는 삶을 위한 수행의 길 △참선-마음 밖에서 찾지말라 등이 있다.

이외에도 180분간 진행되는 조별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서로 나누고, 교육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한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조별토론은 △종단에 바란다 △스님에게 바란다 △어린이법회 교육 프로그램 △지도자 교육 현실 등 5개 주제로 진행된다.

불교포교연구소(회장 김현)는 12월 5~6일 서울 구룡사에서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연다. '부처님 품안 즐거운 우리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지도자의 자세·

5~6일 서울 구룡사에서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연다. '부처님 품안 즐거운 우리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지도자의 자세·

11월 22일부터 2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 서울 선재마을에서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제2회 선재청소년 지도자연수를 실시한다.

법회·교육·포교 환경 개선안 토론 심성계발·답사·놀이 등 내용 다채

어린이·청소년 교화의 필요성과 지도자 삶의 방향을 주제로 한 송목스님(동원정사 주지)의 강연을 비롯해 △심어룡(오해복) △발표회 연출법(장명문) △찬불가(정유탁) △체조(정기자) △놀이 놀이 놀이(이상훈)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선재연구모임 (회장 덕진)은

'나와 부처님은 닮은 꼴'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심성계발(방남승·22일) △법회·취

미활동(하혜진·29일) △찬불가(김경녀·12월 6일) △레크리에이션 지도법(이상훈·12월 13일) 등이 준비됐다.

일암청소년육성재단 일암청소년육성재단 (대표 이영철)이 12월 14~17일 경기도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여는 98 청소년지도자 연수에는 △지도자 역할과 기능 △지도자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 문화 이해 등 이론 교육과 △심성계발 및 답사 프로그램 △문제 및 환경 놀이 등 실천 교육이 마련된다. 이에 앞서 일암청소년육성재단은 28일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모듬활동 △답사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해 예비 모임을 갖는다. 오중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청소년단체 지도자연수계획

단체명	장소	기간	전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속리산 유스타운	99.11~1.3	(051)808-4569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서울 구룡사	12.5~12.6	(02)738-7860
선재연구모임	서울 선재마을	11.22~12.20	(02)433-1506
일암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유네스코청년원	12.14~12.17	(02)990-6365

주부 실행담

포교사된 전주덕 ③ · <끝>

그 시기에 아버지는 포수와 함께 사냥을 다니셨다. 부처님이 지키라고 하셨던 오계의 첫 번째가 바로 불살생(不殺生),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불살생계를 지키지 못해 좋은 곳에 못갔을 거란 생각에 천도재를 지내기로 했다. 난 다시 서울로 올라와 상봉사로 와서 관음기도를 시작했다. 한 15일쯤 정진을 하니 꿈에 친정아버지가 관을 쓰고 나타나셨다. 너무도 경이로운 모습이었다. 부처님께 감사했다. '아무리 딸자식이지만 민분의 일이라도 자식의 도리를 했습니' 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 했다.

처음 관음정진을 시작할 때 기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하루는 오늘이 석달째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 떠올랐다. 그 날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마음이 텅빈 느낌이 들었고 일어나 흠이라도 추고 싶어졌다. 그러나 다른 신도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꼭 참고 기도정진을 계속했다. 이 일이 있는 후로는 내 욕심을 버리고 정당하게 정진대로 하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자유로워졌다. 어려서 엄하게 자랐던 나는 남자들 앞을 얼굴을 들고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수줍음이 많았는데 부처님 뜻이라고 생각이 되니 누구 앞



그림·문병성

욕심 버리면 모든 일 자유로와...

에서나 당당해졌다.

머느리가 개신교도라 가끔씩 고부간의 갈등이 생긴다. 고부간이나 젊은 사람들과 사상이 틀릴 때에는 아무 말없이 방에 들어와 부처님 경전을 사경한다. 사경하다 보면 분한 마음도 속상한 마음도 모두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몸이 건강할 때에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큰스님 법문에는 모조리 따라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일흔쯤에 들어서 거동도 불편하고 눈도 침침해 법문을 들으려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주로 집에서 불교방송을 들으며 지낸다.

몇 년 전 나는 혼자만의 기도와 경전보기로는 불법을 알기에 너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교대학에 입학해 2년 동안 공부를 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거동도 힘들었지만 불법을 배운다는 생각에 너무도 기뻐했다. 처음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불교대학에서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난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강사 스님에게 애원을 했다. 나이 때문에 못배운다면 너무도 억울하다고, 처음엔 안된다고 하시던 스님은 나의 애원에 잠시 망설이시더니 허락을 해주셨다. 덕분에 난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내친 김에 포교사 고시에도 응시해 당당히 포교사 자격을 거머쥐었다.

요즘 나는 교도소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불법을 배운 몸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포교할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 않은가. 또 틈틈이 '법화경' 사경도 하고 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에 나이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나는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거동이 불편해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모시면서 하루종일 불교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윤성애(서울시 양천구 신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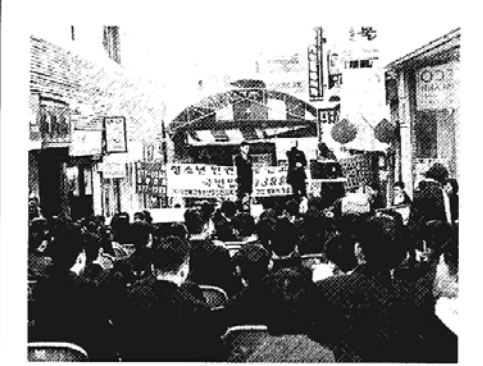
"성교육은 부모가 해야"

구성에서 중리복지관서 강연

구성(내일신문 부설 성상담소장)씨는 16일 마산중리종합복지관(관장 지홍)이 마련한 '올바른 자녀 성교육' 주제로 강연했다. 구씨는 "행위나 오락의 수단으로 격화된 성(性)을 생명과 사람을 낳는 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부모는 자녀의 육구를 이해하고, 육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건전한 방향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매춘, 낙태, 성의 상품화 등 사회문제에 부모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구씨는 강조했다. 성 행위의 핵심이 생명창조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성의 소중함과 행위에 따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nia.com)



'1388 홍보' 거리캠페인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14일 인천자유공원과 신평문화 거리에서 중·고교생 3백여명이 참여한 '1388 긴급전화 1388 홍보 거리캠페인'을 전개하고 견전노래방·기네스대회 등 건강한 청소년 놀이문화를 소개했다.

BBS '정연수'의 IMF 알뜰정보 창고

전문가 초빙 의학·금융·문화정보 소개

"친구도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가 있듯이 례스테로도 우리 몸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질을 잘 알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건강·생활정보와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는 불교방송의 종합 정보 프로그램 '정연수의 정보가이드' (담당PD 최윤희)가 IMF시대 정보에 민감한 청취자들의 주파수를 고

정시키고 있다.

월~일, 저녁 6시15분부터 7시까지 생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은 정보시대' '정보 백과사전' '건강 365일' '돈이 물리는 재테크' '문화탐방' 등의 코너를 신설했다. 또 의학·금융·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유익한 정보도 제공한다.

방송생활 14년 동안 교통·시사 등 정보 프로그램만을 고집해온 정연수씨는 "작은 정보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 주겠다"며 "경전에 들어 있는 부처님 말씀도 틀림없게 소개해 경제 한파로 얼어붙은 청취자들의 마음을 녹여 줄 생각이"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n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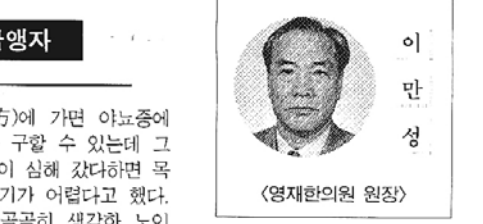


◇정연수씨.

건강 365일 <37> 금행자

옛날 어느 고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이 형제들 중 첫째와 둘째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나 막내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성장해서 청년이 된 이 아들은 외모가 준수하게 생겼으나 어려서부터 오줌싸는 병(야뇨증)이 있어 혼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의원을 찾아 치료를 해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약초 캐는 노인을 만났다.

길 가던 노인을 붙잡은 그는 자신의 대에서 손이 끊기게 됐다며 동시정을 하였다. 그러자 노인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야뇨증·여성 냉대하증에 효험 조루증·설사 치료제로도 쓰여

은 남방(南方)에 가면 야뇨증에 좋은 약초를 구할 수 있는데 그곳에는 학질이 심해 갔다하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한 노인

은 "나도 자식이 없어 당신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지요" 하면서 "당신을 위해 내가 직접 남방에서 가서 약초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라졌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난 지 세 달이 지난 어느날 노인은 얼굴이 노랗게 변한 탈진 상태가 돼서 돌아와 광주리에 있는 약초가야뇨증을 고치는 약이라는 말을 남

울 자원봉사 3만명 참가 대전청교련 29일 98대회

청교련 대전지부(지부장 종실스님)는 11월 29일 10시 30분 경송청소수련원 대강당에서 98 청소년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다.

대전 지역 청소년들이 올 한해 동안 전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하고 99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중·고교생 6백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대회 참가자 전원이 '기아 체험'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관련 상담창구도 개설한다.

올 한해 동안 대전지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된 자원봉사는 총 174종이며, 초·중·고교생 3만천997명이 참여했다.

미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nia.com>

녹수청산이 불교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전통 찻집 '녹수청산'이 중전의 운영형태를 바꿔 불자들에게 위한 만남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앞으로는 불교 실행단체의 공부모임이나 작은 법회, 문화강좌, 세미나 개최 등의 경우 불자라면 누구나 장소를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사용을 원하실 경우는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께서 별도의 서비스(음료제공, 장내정리 협조 등)를 원하실 경우에는 실비에 해당하는 약간의 법보시금을 받아 이를 군법당, 교도소 등에 보내는 신문발송비용으로 사용케됩니다.

=이=응=안=내=

- ▶이용가능한 시간
월~토요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 ▶문의 및 예약접수처
전화 ☎ 02)736-3782
- ▶위 치
권지동 110-33 한마음불교회관내 (현대불교신문사 지하)
- ▶일시 수용인원
50 ~ 70명

한마음 불교사랑 운영자 합장